

육아 지원

~ 시민과 지역 전체가 하나가 되어 어린이를 함께 육성하는 도시 정비를 추진한다 ~

기본방침

어린이는 사회에 있어서 소중한 존재다. 이에 따라 ‘어린이를 함께 육성하는 교토시민헌장’의 이념을 시민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정착시키고, 사회의 모든 장에서 어린이들을 함께 육성하는 실천행동의 틀을 확대해 나간다. 시민과 지역 전체가 하나가 되어 서로 돕는 육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기쁨을 실감할 수 있는 도시, 아이들이 ‘교토에서 자라서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 정비를 추진한다.

다같이 추구하는 10년 후의 모습

- 1 지역 전체가 어린이와 육아중인 부모를 돕는다
- 2 어린이의 생명과 인권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
- 3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 4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쉽다

■ 시민과 행정의 역할 분담과 한마음형 계획

- 동료 만들기나 지역활동에 참가한다
- 부모 자신의 성장을 통해 가정의 양육능력을 향상시킨다

육아중인 가정

- 교토어린이네트워크연락회의, 인재육성21세기위원회를 비롯한 연계 조직에 참가 및 연계한다

육아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

<한마음형 계획의 방향성>

지역 주민들이 육아중인 부모와 그 아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서로 도와 육아가 쉬운 풍토 조성을 위한 자각을 촉구한다

행정

- 육아 동아리 등 자주적인 활동을 통해 가까운 지역에서 육아를 지원한다
- 워크 라이프 밸런스(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을 위한 대응을 추진한다

- 육아 지원 네트워크 확충 등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 안심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정비한다

추진시책

- 1 시민과 지역 전체가 하나가 되어 육아를 서로 돕는 육아 지원 풍토 만들기
- 2 어린이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도시 정비
- 3 다음 세대를 육성하는 모든 가정을 지원하고 돕는 도시 정비
- 4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도시 정비
- 5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환경 정비, 방과후 어린이들의 공간 만들기

장애인의 복지

~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돕는 도시 정비를 추진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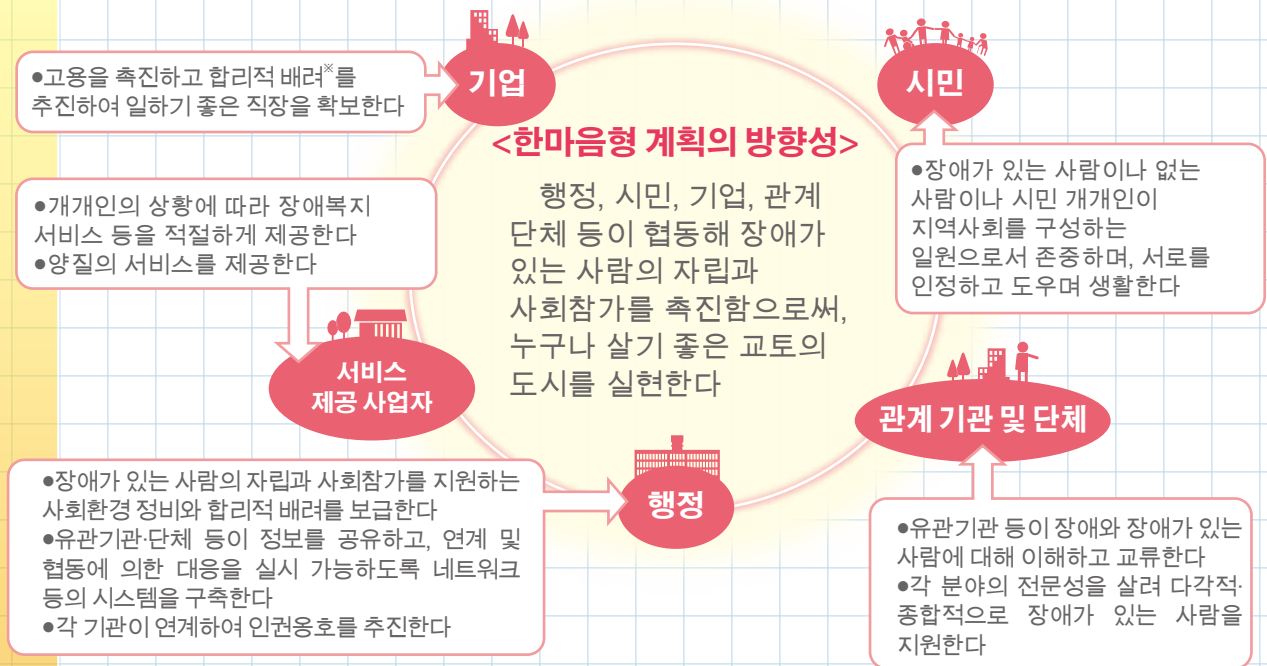
기본방침

장애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고, 또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시책의 착실한 전개를 도모한다. 이러한 대처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 모든 시민이 개인으로서 존중 받고, 지역사회 속에서 활기차게 활동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도우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정비를 추진해 나간다.

다같이 추구하는 10년 후의 모습

- 1 서로 인정하고 도우며, 함께 지역에서 생활하는 도시 정비가 진전되어 있다
- 2 장애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역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3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장애인이 삶의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다
- 4 누구나 생활하기 좋은 사회 환경의 정비가 진전되어 있다

■ 시민과 행정의 역할 분담과 한마음형 계획



*합리적 배려: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리 및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변경 및 조정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배려를 말함(예: 시각장애인용 점자판의 작성, 청각장애인용 점멸식 화재경보장치의 설치 등).

추진시책

- 1 서로 인정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도시 정비
- 2 자립적인 지역생활로의 이행 촉진
- 3 삶의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정비
- 4 생활하기 좋은 사회환경의 정비

지역복지

~ 자치·협동에 의해 자립을 실현하고, 지역의 복지력을 높인다 ~

기본방침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복지활동에 임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기능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공적인 복지제도·시책을 제공하는 행정 및 공공단체가 밀접하게 연계해 함께 실천하는 협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개개인이 자기결정에 따라 자립을 이룬 생활을 실현한다. 이러한 대응을 원동력으로 삼아 '지역의 복지력'을 높이고 모든 주민의 기본 인권이 존중되며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다같이 추구하는 10년 후의 모습

- 1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이 유지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져 서로 돕는다
- 2 지역의 연결과 유대가 깊어진다
- 3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서로 돕는 활동이 활발해져 있다
- 4 자신들의 도시를 자신들이 이끌어간다

■ 시민과 행정의 역할 분담과 한마음형 계획

● 복지 서비스 이용자를 포함해 시민 개개인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존엄성이 유지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감싸며 돕는다
● 주체적으로 지역 활동에 참가한다
● 지역(이웃)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이웃 관계, 네트워크를 평소에 구축한다

지역주민

●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주민조직의 대표로서 구 혹은 학군 단위의 활동을 추진한다
● 지역복지 담당자를 육성한다
● 지역복지 권리옹호사업을 추진한다

<한마음형 계획의 방향성>

지역의 유대의 강화, 지역복지의 담당자 육성,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단체*

※ 지역단체: 각종 단체,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의 전문기관

대학

● 대학의 지적 자원 및 학생의 에너지를 지역복지 추진으로 연결시킨다
● 지역복지의 감성을 지닌 인재를 육성한다

행정

●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시한 지역복지 활동을 지원한다
●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단체와 대학 등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추진시책

- 1 지역의 복지 요구 파악
- 2 지역에서의 관계 구축
- 3 관계자의 연계 및 협동 추진
- 4 지역 복지를 통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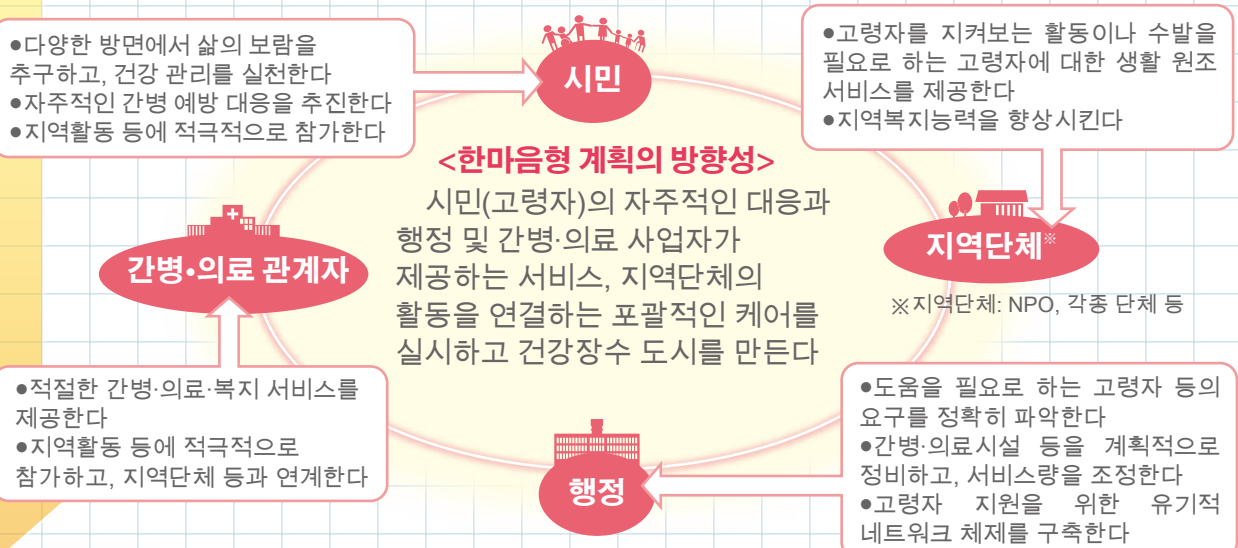
기본방침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기를 맞이함에 따라 향후 간병급부비를 비롯한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자 자신이 취직이나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보람 만들기, 건강 관리를 함으로써 활력 있는 도시 정비를 추진한다. 또 간병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정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간병·의료시설 등의 정비에 힘쓰고, 지역주민 참여형 케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 전체가 고령자를 돕는 시스템을 정비한다.

다같이 추구하는 10년 후의 모습

- 1 고령자의 존엄성이 유지되며 심신 모두 건강하고 내실 있는 '행복기'를 보내고 있다
- 2 고령자의 지혜와 경험,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활력 있는 장수사회가 실현된다
- 3 고령자를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 4 간병 서비스의 내실화를 통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
- 5 간병 현장이 매력적인 직장이 됨으로써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활약하고 있다

■시민과 행정의 역할 분담과 한마음형 계획



추진시책

- 1 고령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사회 구축
- 2 활력 있는 장수사회 실현
- 3 고령자를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추진
- 4 간병 서비스의 내실화를 통한 풍요로운 생활 실현
- 5 매력 있는 간병 현장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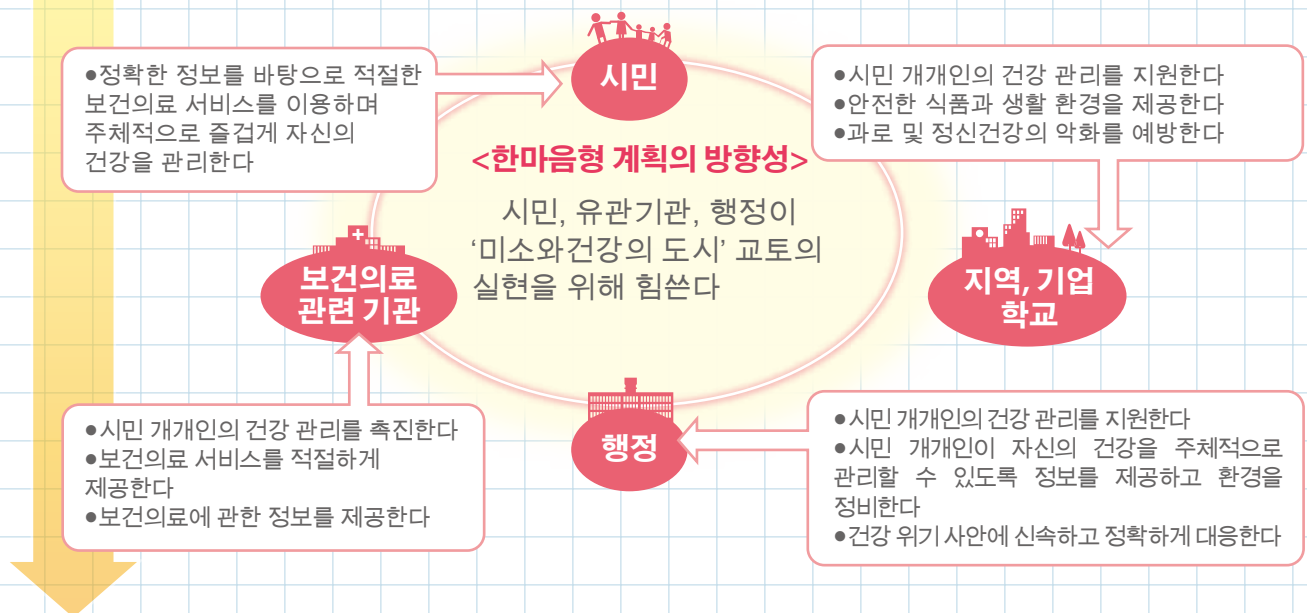
기본방침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시민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심신의 건강 관리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동시에, 건강의식의 향상을 도모한다. 또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건강 관리 활동의 육성을 촉진하는 생활환경을 정비한다. 또한 전염병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확립한다.

다같이 추구하는 10년 후의 모습

- ① 모든 시민이 건강 관리에 힘쓰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한다
- ② 필요할 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식품과 생활환경의 안전이 확보되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 ④ 건강위기에 대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 시민과 행정의 역할 분담과 한마음형 계획



추진시책

- ① 시민 건강 관리 활동의 추진
- ② 보건 의료 서비스의 내실화
- ③ 식품과 생활환경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정비
- ④ 건강위기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정비

기본방침

어떠한 사회 정세 하에서도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교토시의 교육 이념 하에 교토에서 배운 어린이들이 생명을 소중히 하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지역·대학·산업계·NPO 등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시민 전체가 어린이들의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학교 교육을 추진한다.

다같이 추구하는 10년 후의 모습

- 1 사회의 보물인 어린이들을 지역 전체가 하나가 되어 키우고 있다
- 2 교직원과 보호자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확실히 연계하고 있다
- 3 어린이들이 모든 장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있다
- 4 교토에서 배운 어린이들이 모든 상황에서 활약하고 있다

■시민과 행정의 역할 분담과 한마음형 계획

- 책임감을 가지고 어린이들의 교육을 보장한다
- 학교 간에 긴밀히 연계해 열린 학교를 만든다
- 어린이들의 규율 있는 생활습관과 가정학습의 정착을 위해 가정과 긴밀히 연계한다

- 어린이들에게 규율 있는 생활습관과 규범의식, 학습습관을 익히게 한다
-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PTA나 지역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 최첨단 연구를 어린이들에게 체험시키는 장을 마련한다
- 학생 자원봉사, 인턴십, 공동연구 등 학교와 상호협력한다

-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교육이 한층 더 추진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유치원

<한마음형 계획의 방향성>

어른들 모두가
아이들을 키우는
당사자로서 미래를
집어질 아이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가정

대학

행정

지역

기업 등

- 학습과 스포츠, 학교행사, 교외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
- 지역에서의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비롯해,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배움과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 학교로의 출장수업 등 차세대 육성을 위한 대응을 추진한다
- 'OK기업'※의 대응 등을 통해 워크라이프 밸런스(일과 생활의 조화)를 추진한다

※O(아버지)K(육아 참여를 이해하는) 기업 등을 모집해 인정 및 표창하는 활동

추진시책

- 1 시민 전체의 교육 추진
- 2 어린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추진
- 3 교직원의 자질 및 지도력 향상
- 4 새로운 학습 환경 정비

기본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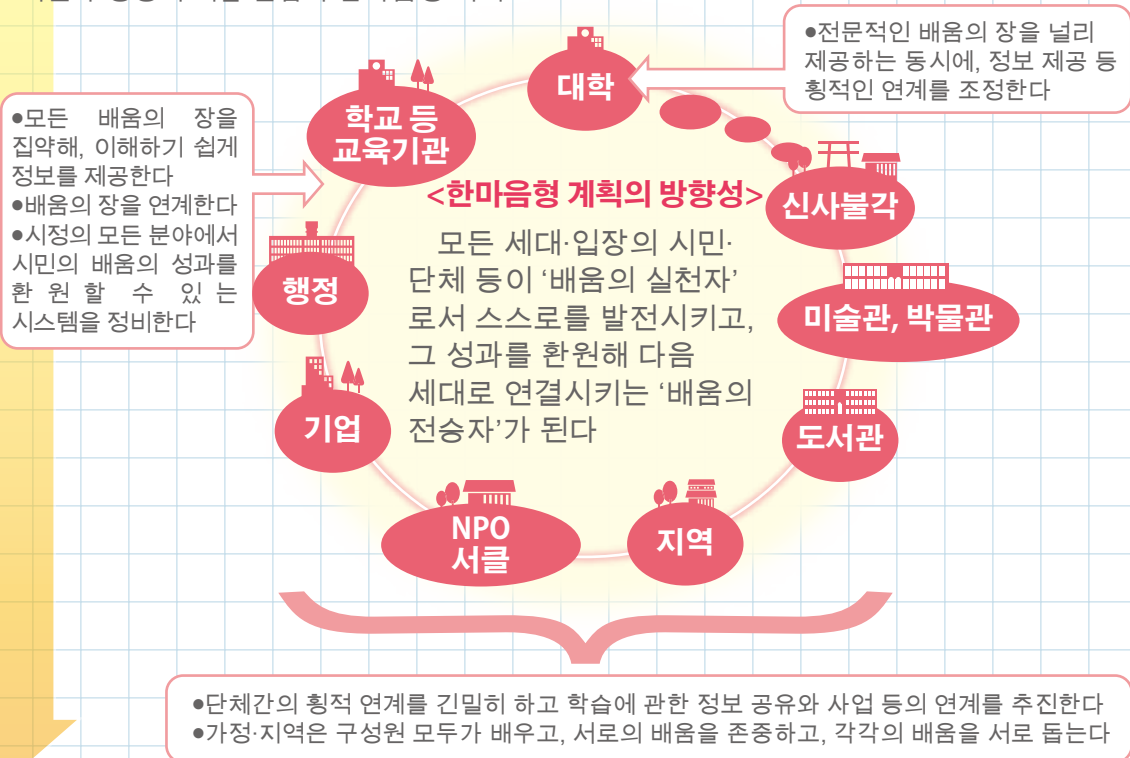
‘풍요로운 인생은 배움과 함께 있다’는 관점에서 교토의 ‘지역의 힘’, ‘문화의 힘’, ‘인간의 힘’을 결집해 도시 전체를 배움의 장으로 만듦으로써 어린이나 젊은이부터 고령자까지 시민 누구나 배우는 기쁨을 실감하고, 스스로를 계발하며, 사회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도시 정비를 추진한다.

또 다음 세대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시민 전체가 건전하게 키우기 위해, ‘어린이를 함께 육성하는 교토시민헌장’의 실천을 위한 대응을 시민 전체가 추진한다.

다같이 추구하는 10년 후의 모습

- 1 시민이 도시의 모든 장에서 배우고 있다
- 2 시민의 배움을 활용한 도시 정비가 진전되어 있다
- 3 배움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있다
- 4 ‘어린이를 함께 육성하는 교토시민헌장’의 이념에 따른 행동이 시민들 사이에 정착되어 있다

■ 시민과 행정의 역할 분담과 한마음형 계획



추진시책

- 1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배움의 네트워크’ 확충
- 2 배움이 사회로 환원되는 시스템 구축
- 3 어린이를 함께 키우는 분위기 조성